

대외관세의 차이가 무역전환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남미공동시장의 사례*

김중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미주지역전공 부교수

본 논문은 무역전환효과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별로 분석한 결과 무역전환효과가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내수출과 역외수출간의 수출유사성지수와 각국의 수입에서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가 높은 브라질에서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생한 대신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가 낮은 칠레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그 중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통합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브라질에서보다는 훨씬 적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합을 추구할 때 대외관세가 낮을수록 무역전환효과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남미공동시장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할 때 무역전환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대외공동관세를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제어: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 무역전환효과, 수출유사성지수

I. 머리말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국가가 많아지자 지역경제통합이 세계무역체계를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 것이란 기대가 증가함과 동시에,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의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내 무역을 주로 하는 선진국들간의 지역통합보다는 산업간 무역에 치중하는 개발도상국간의 지역통합에 있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196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추진된 경제통합체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지만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Yeats(1997)는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남미공동시장회원국간의 무역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남미공동시장회

* 이 연구는 200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원국들 사이에 수출되는 제품중 남미공동시장 출범을 전후하여 급증한 제품은 주로 이 지역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는 자본집약적인 제품이라는 것이다. Cernat(2001)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역내수출을 늘리고 역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인 것은 무역전환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¹⁾

그러나 이들의 분석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Yeats의 분석에서는 수출데이터만 이용하였기 때문에 수입에서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의 개연성만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두 연구 모두 남미공동시장을 하나의 단위로 다루었기 때문에 남미공동시장 전체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따라서 개별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역창출효과나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역전환효과가 통합체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지역통합체 안에서도 무역전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대외공동관세에 예외 항목이 많다는 점, 칠레의 경우처럼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경제통합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무역전환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외관세가 높을수록 무역전환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관세가 서로 다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및 칠레에서 경제통합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 개별 회원국들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서 무역전환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출데이터와 함께 수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효과를 조명하려고 한다. 또 남미공동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뿐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분석하였으며 Yeats(1997)가 포함하지 않은 칠레를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킴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더 낮은 대외관세를 적용할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더 적게 발생하는지도 살펴보려 한다.²⁾

1) 물론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많다.

예를 들어 Devlin and French-Davis(1999)는 무역전환효과라는 정태적인 비용은 동태적인 효과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Nagarajan(1998)은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지 전체적인 후생효과를 추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2) 칠레는 다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는 달리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를 따르지 않는 준회원 자격으로 남미공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대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II. 배경

1. 지역경제통합과 무역전환효과

경제통합의 후생적인 효과는 관세동맹이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을 차별하는 지역경제통합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시킬 수도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던 재화가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해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될 때 일어난다. 이 때 국내의 비효율적인(고비용) 생산이 회원국의 효율적인(저비용) 생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³⁾

무역전환효과는 관세동맹으로 인해 회원국이 관세를 내지 않게 되자 수입선을 비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다. 관세동맹 체결 이전에 비회원국에서 수입하였다는 것은 같은 조건하에서는 비회원국의 재화가 더 저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전환은 비회원국의 효율적인 생산에서 회원국의 비효율적인 생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따라서 후생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⁴⁾

전체적인 후생효과는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이나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 이후 역외무역이 감소하고 역내무역이 증가하면 무역전환효과가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내무역이 감소하고 역외무역이 증가하거나 역내외 무역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는 지역통합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제일 까다로우면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로서 무역전환효과가 얼마큼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역내무역의 증가가 주로 역내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무역전환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일반적인 수출구조는 그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모든 국가에 같은 상품을 수출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 어떤 국가와도 특별한 관계 없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수출품목과 구조는 모든 국가에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교역상대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수출대상국별로 수출품목과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거리, 문화적 근접성, 소비자의 취향, 생산 기술의 유사성

3) Viner(1950) 참조.

4) 관세동맹은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정태적인 효과 외에도 경쟁심화, 기술진보, 투자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동태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는 다루지 않고 있다.

등에 기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한국이 세계시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전혀 없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농산물 품목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따라서 아무런 특혜관세를 적용받음 없이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무역이 어떤 왜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어느 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을 인접한 회원국에게 수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무역전환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전환효과를 실증적인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Yeats(1997)는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남미공동시장의 무역이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는 남미공동시장의 역내무역에서 가장 급속하게 무역량이 증가한 품목들이 회원국들이 세계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별로 수출하지 못한 자본집약적인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을 회원국에게 수출하는 것이 꼭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예로 아르헨티나가 생산하는 자본집약적인 제품 중에 운송비용이 매우 높은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품이 인접한 브라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역전환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Yeats는 무역전환효과의 개연성만을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려고 한다.

2. 남미공동시장의 역내무역

남미공동시장은 1991년 3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체결한 아순시온협정(Tratado de Asunción)에 의하여 생겨났으며 1994년 12월까지 공동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남미공동시장이 발효되기 전 아르헨티나는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데 비해, 브라질은 관세 등으로 무역에 규제를 많이 가하는 편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역내 무역 비중에 있어서도 브라질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경제통합에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더 적극적이며 대외공동관세에 대한 협상에서도 브라질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요구하였다. 아르헨티나로서는 브라질이 주장하는 높은 대외공동관세가 관철된다면 경제통합으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가 클 것으로 보았다.⁵⁾

칠레와 볼리비아는 1996년 준회원 자격으로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하였으며 이들은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칠레는 자국의 대

5) Nogues and Quintanilla (1993) 참조.

외관세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 왔으며 이 번에도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높은 대외공동관세는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준회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은 높은 대외공동관세에서 비롯되는 무역전환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1995년부터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0-20%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2006년까지 완전한 관세동맹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으로 자본재,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위성통신 등이 있으며, 자동차와 설탕은 특별 예외품목으로 분류, 현재 관세동맹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대외공동관세 예외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무역전환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대외관세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의 발효로 회원국들간의 무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아르헨티나는 1990년과 1999년 사이에 남미공동시장 역내무역이 350% 증가함으로써 역내무역비중이 21.8%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역내무역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증가율 면에서 역내무역의 350%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외무역도 1990년과 1999년 사이에 150% 이상 증가하였다. 다른 회원국들의 무역도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추세를 따라갔다. 즉 남미공동시장 출범 이후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역내무역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1>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간의 무역 (백만불)

기준국		Argen.	Brazil	Parag.	Urug.	Chile	Bol.	Mercosur	세계	역내무역 비중(%)
Argen.	1990		2141	189	379	574	302	3585	16431	21.8
	1999		11229	854	1196	2473	356	16108	48402	33.3
Brazil	1990	2311		748	948	1061	222	5290	56391	9.4
	1999	11758		1030	1381	1682	468	16319	103094	15.8
Parag.	1990	221	540		22	58	5	846	2406	35.2
	1999	881	1079		110	99	5	2174	3873	56.1
Urug.	1990	304	809	21		37	2	1173	3047	38.5
	1999	1164	1209	95		101	4	2573	5816	44.2
Chile	1990	617	1051	64	43		95	1870	15914	11.8
	1999	2749	1656	100	108		216	4829	29852	16.2
Bol.	1990	310	196	6	4	122		638	1623	39.3
	1999	321	310	5	85	158		879	3256	27.0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MF)

남미공동시장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급속한 역내외무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출품목이 자본집약적인 상품이라는 데서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Yeats(1997)는 남미공동시장의 역내무역이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근거로 다음 <표 2>를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128개 제조업 제품군을 지역편향지수(Regional Orientation Index: RO index)⁶⁾가 상승한 비율순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10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로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⁷⁾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표에서 RO지수가 많이 상승한 품목일수록 RCA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역내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들은 세계시장에서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이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들이라는 것이다.

<표 2> 남미공동시장에서의 지역편향지수와 RCA 지수

분위	Regional Orientation Index		RCA Index	
	1988	1994	1988	1994
1/10분위	3.84	13.47	0.43	0.24
2/10분위	1.63	4.26	0.64	0.48
3/10분위	1.39	1.86	0.88	0.54
4/10분위	1.50	1.67	0.96	0.99
5/10분위	1.11	1.16	2.15	2.14
6/10분위	1.33	1.12	2.65	3.68
7/10분위	1.15	0.78	3.04	3.60
8/10분위	1.73	0.96	2.05	2.60
9/10분위	3.48	1.33	0.86	2.06
10/10분위	31.82	10.17	0.24	1.99

자료: Yeats(199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미공동시장 역내에서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교역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이 무역전환효과를 의미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6) j 제품의 지역편향지수(ROj)는 다음과 같다.

$$ROj = [x_{rj}/X_r]/[x_{oj}/X_o]$$

x_{rj} 와 x_{oj} 는 각각 j제품의 역내수출과 역외수출을 나타내며 X_r 과 X_o 는 각각 총역내수출과 총역외수출을 나타낸다. ROj가 1보다 높다는 것은 j제품이 역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7) j 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j)는 다음과 같다.

$$RCAj = [x_j/X]/[x_{wj}/X_w]$$

x_j 와 X 는 해당 국가의 j제품수출과 총수출을 나타내며 x_{wj} 와 X_w 는 각각 세계의 j제품수출과 총수출을 나타낸다. RCAj가 1보다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j제품 수출비중이 세계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국가가 j제품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II.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국가별 무역전환효과

지역경제통합을 하게 되면 회원국들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비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수입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회원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도 회원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국이 역내시장에 수출하는 품목과 역외시장에 수출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다. 즉, 두 시장간에 수출구조가 다를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의 경우 지역경제통합이 얼마큼 회원국들의 수출구조를 왜곡하였는가를 보기 위해서 남미공동시장 형성을 전후하여 역내수출구조와 역외수출구조가 얼마큼 달라졌는가를 분석하려 한다. 만약 경제통합으로 인해서 역내수출구조가 역외수출구조와 더욱 상이해졌다면 이것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통합협정이 회원국들에게 무관세 등의 특혜적인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한 회원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도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대상 시장간의 수출구조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inger and Kreinin(1979)가 제안한 수출유사성지수를 사용하려 한다.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⁸⁾

$$S(a, bc) = \left(\sum_i \text{Min}[X_i(ab), X_i(ac)] \right) * 100$$

위에서 S(a, bc)는 A국의 대 B시장 수출과 A국의 대 C시장 수출의 수출유사성지수; Xi(ab)는 A국의 대 B시장 수출에서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 Xi(ac)는 A국의 대 C시장 수출에서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A국의 대 B시장과 대 C시장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낸다. 만약 A국의 대 B국 수출과 대 C국 수출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ESI의 값은 100이 되며, 두 시장에 대한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다면 ESI의 값은 0이 된다. ESI는 0과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시장에 대한 수출구조가 비슷함을 나타낸다.

8)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수출유사성지수는 수출경합도지수로 번역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S(ab, c) = \left(\sum_i \text{Min}[X_i(ac), X_i(bc)] \right) * 100$$

위에서 S(ab, c)는 A국과 B국 사이의 C시장에서의 수출경합도 지수; Xi(ac)는 A국의 대 C국 수출에서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 Xi(bc)는 B국의 대 C국 수출에서 상품 i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수출시장 C에서 A국과 B국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얼마나 유사한가, 즉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나타낸다. 만약 C국 시장에서 A국과 B국의 상품별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ESI의 값은 100이 되며,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다면 ESI의 값은 0이 된다. ESI는 0과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비슷하여 경쟁적임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남미공동시장의 형성을 전후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등이 역내에 수출하는 품목과 역외에 수출하는 품목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⁹⁾ 데이터는 UN COMTRADE DATA를 사용하였으며, 제품분류는 4단위 SITC를 채택하였다. <표 3>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에 대하여 ESI를 계산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표 3>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ESI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Arg	NA	38.0	39.5	35.2	34.0	34.5	30.5	33.3	33.0	32.3
Bra	45.0	40.0	39.0	39.0	40.3	38.6	34.8	35.1	36.1	36.4
Chil	38.3	56.3	52.1	46.3	47.2	52.6	49.8	49.6	51.2	NA
Par	39.4	49.1	37.4	21.1	32.7	56.8	50.2	49.6	40.1	53.5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과 남미공동시장 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는 제품의 구조는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으며, 이것은 이 기간에 ESI가 하락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칠레와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ESI에 대한 특별한 추세나 시사점을 찾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ESI가 하락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이들 국가들이 남미공동시장에 수출하는 품목은 남미공동시장 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역전환효과 때문일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라도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시장에서는 협정 체결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Yeats(1997)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ESI가 하락한 데 대한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무역창출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원국들간의 수출증가가 비회원국들의 수출을 대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입국 내의 생산을 대체하면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이 증가한 제품이 비회원국에게도 많이 수출되던 품목이면 ESI가 상승하겠지만 비회원국에게는 별로 수출되지 않았던 품목이라면 ESI는 하락하게 된다.

문제는 비회원국들에게 별로 수출하지 못하던 품목이라면 이 회원 수출국이 이 제품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 수출구조가 수출대상국 모두에 대하여 같

9) 우루과이는 자료부족으로 제외하였음.

을 필요는 없다.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수출구조는 경쟁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모든 수입국에 대하여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다를 수 있다. 즉, 문화적으로 다르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에게는 경쟁력이 없어도 인접한 국가에게는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에는 운송비, 시장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대일 수출과 대미 수출간의 ESI도 0.49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일본에 수출하는 상품과 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이 대외적으로 농산물에 대하여 경쟁력이 없지만 일본에 대하여는 몇 가지 농산물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꽤 수출하는 반면 미국에게는 농산물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ESI가 남미공동시장의 발효와 함께 감소하였다는 것만 갖고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ESI가 하락하겠지만 ESI가 하락하였다고 해서 꼭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ESI를 사용한 분석은 Yeats의 분석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SI의 변화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어떤 품목들이 ESI하락에 기여를 했는지 분석하고 상대방 국가에서 이 제품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I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상기 방법은 제품의 지역편향지수(RO지수)와 교역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는 아르헨티나의 ESI가 1991년 38.0에서 1996년 30.5로 감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상위 10개 품목을 보여준다. 2번째에서 5번째 열은 수출액을 나타내며, 6번째 열은 해당 품목의 수출 증가로 인한 ESI의 하락폭을 나타낸다. 물론 표에 나와 있는 품목들은 1996년 ESI를 1991년보다 낮게 하는 데 기여한 품목들이며, 1996년 ESI를 높게 하는 데 기여한 품목들은 열거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ESI 하락에 제일 크게 기여한 품목은 3330, 0449 및 7812 등이라고 할 수 있다. ESI를 떨어뜨리는데 기여한 품목 중 3330, 3341, 0813, 4211의 경우는 무역전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들 품목에서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도 급속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0449, 0114, 0363은 역내 수출은 정체되어 있었던 반면 역외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역내 대 역외 수출구조가 달라지는 데 기여하였다. 7812, 7821, 7132의 경우 역내시장에서는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대신 역외시장에서는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정체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역전환효과는 수입국 측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4> 아르헨티나의 ESI 변화에 영향을 준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SITC	mer91 ^a	mer96 ^b	nonmer91 ^c	nonmer96 ^d	ESI(91-96) ^e
0363	1	2	30	350	2.13
0449	71	75	330	1149	6.70
0813	6	39	1213	2254	2.31
3330	100	1863	48	457	12.59
3341	0	228	0	74	1.88
4211	49	81	470	820	1.84
6114	101	126	373	692	3.27
7132	25	173	17	1	0.93
7812	48	795	12	9	6.38
7821	3	239	1	12	2.30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 a. mer91: 1991년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수출액
- b. mer96: 1996년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수출액
- c. nonmer91: 1991년 남미공동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액
- d. nonmer96: 1996년 남미공동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액
- e. ESI(91-96): 1991년과 1996년 사이 ESI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

따라서 회원국별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서 무역전환효과를 추정하려 한다. 앞에서 7132, 7812, 7821 등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표 5>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브라질의 품목별 수입 중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표에서 7812와 7821은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무역전환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비중 상승은 비회원국의 비중이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7132는 무역전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도 같은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증가하지 않았다.

<표 5> 브라질 수입에서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0363	0.22	0.30	0.20	0.40	NA	0.25	0.16	0.40	0.50	0.50
0449	0.60	0.70	0.83	0.92	NA	0.72	0.67	0.80	0.88	0.69
0813	0.94	0.00	0.00	0.60	NA	0.54	0.25	0.26	0.19	0.07
3330	0.00	0.00	0.01	0.17	NA	0.22	0.27	0.27	0.24	0.18
3341	0.00	0.61	0.88	0.00	NA	0.10	0.18	0.16	0.12	0.14
4211	0.99	0.74	0.29	0.54	NA	0.52	0.40	0.38	0.63	0.65
6114	0.27	0.71	0.69	0.54	NA	0.63	0.68	0.71	0.79	0.71
7132	0.40	0.40	0.45	0.49	NA	0.43	0.44	0.43	0.23	0.30
7812	0.00	0.24	0.35	0.21	NA	0.06	0.48	0.53	0.56	0.48
7821	0.00	0.13	0.08	0.61	NA	0.50	0.53	0.75	0.82	0.84
total	0.02	0.06	0.08	0.26	NA	0.20	0.34	0.39	0.43	0.32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그러나 칠레의 경우는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무역전환효과가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칠레의 대 아르헨티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품목별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32, 7812, 7821 등의 품목에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브라질의 경우와는 달리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품목은 3330이지만 이 품목은 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역전환의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하였듯이 칠레는 낮은 대외관세로 인하여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 같은 강한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6> 칠레 수입에서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0363	0.00	0.84	0.42	0.55	0.54	0.00	0.00	0.00	0.00
0449	0.08	0.13	0.54	0.32	0.41	0.11	0.19	0.64	0.69
0813	0.10	0.27	0.49	0.33	0.17	0.40	0.33	0.30	0.35
3330	0.07	0.10	0.03	0.01	0.43	0.51	0.53	0.56	0.63
3341	0.00	0.00	0.00	0.51	0.00	0.08	0.06	0.30	0.36
4211	0.97	0.99	0.99	0.99	0.97	0.92	0.94	0.90	0.88
6114	0.40	0.39	0.36	0.46	0.45	0.50	0.46	0.52	0.46
713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8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782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2
total	0.08	0.09	0.06	0.05	0.22	0.23	0.24	0.26	0.30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브라질의 경우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ESI가 45.0에서 34.8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주된 영향을 준 상위 10개 품목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질의 역내 수출구조가 역외수출구조와 달라지게 된 것은 7812, 7821, 7843의 역내수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들 품목의 역내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역외수출은 감소하였거나 정체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품목들은 역외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였거나 역내 역외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경우이므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무역전환효과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브라질 제품을 수입하는 남미공동시장회원국들의 수입구조를 살펴보아야 ESI의 변화가 무역전환효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표 7> 브라질의 ESI 변화에 영향을 준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SITC	mer90	mer96	nonmer90	nonmer96	ESI(90-96)
0611	0.0	30.0	325.7	1161.0	1.47
0813	0.3	0.0	1654.0	2771.0	1.42
1212	28.2	28.0	454.6	890.0	1.82
1222	6.1	198.0	51.2	283.0	1.51
4211	15.8	3.0	317.7	710.0	1.60
7212	4.5	91.0	38.1	30.0	0.90
7812	29.0	434.0	388.3	185.0	4.44
7821	50.7	376.0	401.1	182.0	2.52
7843	26.7	593.0	505.6	713.0	5.24
9710	0.0	0.0	0.0	583.0	1.48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남미공동시장내에서 브라질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아르헨티나의 대 브라질 수입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10개 품목의 브라질 비중이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812, 7821, 7843의 품목들조차도 브라질의 비중은 상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무역전환효과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통합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브라질보다는 훨씬 적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8> 아르헨티나의 수입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0611	0.03	1.00	1.00	1.00	1.00	1.00	NA	NA
0813	NA							
1212	0.87	0.76	0.68	0.69	0.50	0.43	0.71	0.73
1222	0.00	0.00	0.00	NA	NA	NA	NA	NA
4211	NA							
7212	0.43	0.34	0.40	0.30	0.41	0.33	0.36	0.27
7812	0.46	0.25	0.13	0.17	0.23	0.41	0.41	0.36
7821	0.67	0.29	0.38	0.33	0.43	0.54	0.54	0.54
7843	0.48	0.50	0.50	0.55	0.53	0.35	0.33	0.34
9710	NA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칠레의 대 브라질 수입도 의미 있는 추세를 찾아볼 수 없다. <표 9>에서 보듯이 브라질의 역내 역외 수출구조를 변화시킨 품목 중 칠레 수입에서의 비중을 현격하게 높인 품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러한 품목의 칠레 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칠레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별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칠레 수입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0611	0.00	0.00	0.00	NA	0.00	NA	NA	NA	NA
0813	0.00	0.15	0.00	0.05	0.00	0.00	0.00	0.00	0.19
1212	0.76	0.44	0.63	0.26	0.31	0.50	0.67	0.40	0.62
1222	0.87	0.00	0.00	0.00	0.54	0.50	1.00	1.00	1.00
4211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212	0.11	0.12	0.14	0.12	0.14	0.12	0.10	0.10	0.08
7812	0.10	0.10	0.11	0.06	0.05	0.04	0.04	0.03	0.04
7821	0.25	0.20	0.24	0.21	0.17	0.13	0.10	0.13	0.09
7843	0.11	0.13	0.13	0.14	0.12	0.13	0.13	0.14	0.13
9710	NA	0.00	0.00	0.00	0.00	NA	NA	NA	NA

자료: UN COMTRADE DATA로부터 추정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역전환효과를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별로 분석한 결과 무역전환효과가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브라질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칠레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면서도 대외관세가 서로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남미공동시장이 발효되기 전 아르헨티나는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데 비해, 브라질은 관세 등으로 무역에 규제를 많이 가하는 편이었으며, 경제통합협상에서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요구하였다. 결국 대외공동관세는 1995년부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많은 품목은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경우 대부분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보다 높은 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 칠레는 1996년 준회원 자격으로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함으로써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낮은 대외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역외국에 대한 수입관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원국들 사이에 무역전환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즉, 대외관세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가 높은 브라질에서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생한 대신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가 낮은 칠레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그 중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유사성지수와 각국 수입에서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예상하였듯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역통합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브라질에서보다는 훨씬 적게 발생하였다. 칠레는 낮은 대외관세로 인하여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 같은 강한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통합을 추구할 때 대외관세가 낮을수록 무역전환효과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남미공동시장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할 때 각국에서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외공동관세를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원호. 2001. 「중남미 지역통합의 추이와 의미」. 2001년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발표 논문. 한·중남미협회.
- 손병해. 1995. 『경제통합론』. 법문사.
- Behar, Jaim. 1991.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Industry Trade: the case of the Argentine-Brazili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29(4), June. pp.527-552.
- Cernat, Lucian. 2001. "Assessing Regional Trade Arrangements: Are South-South RTAs More Trade Diverting?." *Polic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Study Series* 16. United Nations.
- Devlin, R., and R. French-Davis. 1999. "Towards an Evalu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in the 1990s." *The World Economy* 22(2), March. pp.261-290.
- Finger, J. Michael and Mordechai Kreinin. 1979.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ssible Uses." *Economic Journal* 89(356), December. pp.905-912.
- Freund, Caroline L. and John McLaren. 1999. "On the Dynamics of Trade Diversion: Evidence from Four Trade Blocs."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637.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Kim, Chong-Sup and Young-Mi Chon. 2001. "Production Sharing in Latin Ame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5(3). pp.83-102.
- Nagarajan, N. 1998. "La evidencia sobre el desvio de comercio en el MERCOSUR." *Integracion y Comercio* 2.
- Nogues, Julio and Rosalinda Quintanilla. 1993. "Latin America's Integration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eat Britain. pp.278-313.
- Viner, J.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Yeats, S. 1997. "Does Mercosur's Trade Performance Raise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729.

Non-Common External Tariffs and Trade Diversion: The Case of Mercosur

Kim, Chong-Sup

*Associate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analyzing the trade diversion effect in each of the Mercosur's member countries, this paper shows that trade diversion effect depends on the import tariffs on non-member countries. In 1990s, trade diversion effect was strong in Brazil, whose import tariffs on non-member countries were high, whereas it was weak in Chile, whose import tariff on non-member countries were relatively low. Argentina was an intermediate case.

Even if Mercosur aimed at a common market, it was far from being one. There were many exceptions to common external tariff, and this was the cause of the different trade diversion effect across member countries. Before the formation of Mercosur, Argentina's trade regime was relatively open whereas Brazil maintained some protection. This tendency remained even after Mercosur was established. Chile participated in Mercosur as an associate member and was able to maintain low tariff rates. Such different tariff levels among member countries resulted in different trade diversion effect, the strongest effect appearing in Brazil, whose tariffs on non-member countries were the highest.

The implication of the analysis is that eve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common external tariff, as common markets, the trade diversion effect may differ greatly across countries if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e common external tariff. A policy implication is that,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trade agreement, each member country has to reduce the tariff rates to the non-member count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trade diversion effect.

Keywords: *Mercosur, common external tariff, trade diversion effect, export similarity index*